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 리질리언스 및 주관적 행복감의 관계

김중경*, 이준근**,
*김천대학교 간호학과
**공주대학교 간호학과
e-mail:jj2c@nate.com

Relationship between self-esteem, resilience, and subjective happiness in nursing college students

Jung-Kyoung Kim*, Jun-Gen Lee**

*Dept. of Nursing, Gimcheon University

**Dept. of Nursing, Kongju University

요약

본 논문에서는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 리질리언스 및 주관적 행복감 정도를 알아보고, 아울러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파악하여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을 증진시키기 전략 및 구체적인 중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연구대상자는 일부 지역 간호대학생 204명이었고, 자료분석은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 리질리언스 및 주관적 행복감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 백분율, t-test, ANOVA 분석을 하였고,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을 이용하였다.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은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자아존중감과 리질리언스는 학년과 학과 만족도가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주관적 행복감은 학과 만족도가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관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은 리질리언스, 주관적 행복감과 유의하게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리질리언스는 주관적 행복감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변량 회귀분석 결과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에 학년과 학과만족도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설명력은 20%이었다. 결론적으로, 간호대학생들의 주관적 행복감을 위해 학년별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며, 학과 만족도를 위한 전략 및 계획을 수립하여 적용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1. 서론

우리나라에서는 고등학교 과정까지 대학 입시 위주의 수동적인 학습을 하면서 대학교 입학 이후 학생 스스로 자율성과 독립성을 갖춘 생활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대학 입학 또한 개인의 적성이나 관심 영역 이외의 취업이나, 성적, 주변의 요구로 인한 진학이 많다. 우리나라에서는 간호학과의 높은 취업률로 인해 타 학과보다 경쟁률이 높으며 인력 난으로 인해 정원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1]. 이로 인해 간호학과에 진학하는 학생들은 취업, 주변의 요구에 따른 수동적으로 학교로 입학하게 되고, 이러한 학생들은 간호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 진학하여 전공에 대한 이해와 만족도가 낮아 대학생활에 적응과 만족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2].

자아존중감은 자기 스스로에 대해 내리는 평가로 자신을 가치 있는 존재로 생각하며 존경하며, 행동을 결정할 때 핵심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3][4]. 대학생은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대학생활에 부적응을 경험하게 되며, 정체감을 가질 수 있다[5]. 또한 인간의 사회적 적응과 목표달성 등에 큰 영향을 주는 요소로 자신이 어떻게 생활을 보낼지에 대한 판단과도

연결 될 수 있다[6]. 보편적으로 자아존중감은 자신을 보호하는 방어적 기술로 가치가 있고,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이 높이는 전략은 성공적인 대학생활과 더불어 전문적 의료인으로 나아갈 수 있다[7].

리질리언스는 상황적 요구나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에서 적절한 자아통제를 바탕으로 유연하게 대응하여 성공적인 적응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8]. 리질리언스의 과정은 일상생활에 대한 적응과 이에 따른 기능을 통해 이루어지는 일상 속에서 나타날 수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다[9]. 간호대학생에게 리질리언스는 스트레스 상황을 이겨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리질리언스가 강화되면 정신적으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증진하는 것에 도움을 준다[10].

주관적 행복감은 개인 자신의 삶에서 경험하는 총체적인 감정으로 지각된 행복감을 의미하고, 이러한 감정은 주관적 안녕감으로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것이다[11]. 주관적 행복감이 높을수록 개인의 행동에 자율적 조절 능력이 향상되고, 주변 환경을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 되며 자신의 삶의 목표가 뚜렷하게 잡혀 잠재력을 실현 시킬 수 있다 [12]. 또한 주관적 행복감은 간호대학생들의 개별적, 총체적인

돌봄 자세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13].

이에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 리질리언스 및 주관적 행복감과의 관계를 알아보고, 간호대학생들의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본론

2.1 연구방법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 리질리언스 및 주관적 행복감과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 리질리언스가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20년 10월 12일에서 2020년 10월 16일까지 D광역시 소재의 2개 4년제 대학 간호학과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자 모집에는 연구자가 직접 연구목적과 내용에 대해 설명하였고, 연구 참여 의사는 자발적 서면동의로 이루어졌다. 연구 대상자들에게는 연구 도중 언제라도 중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불이익은 없음을 설명하였다. 총 210명의 응답자 가운데 불성실한 응답을 한 설문지 6부를 제외하고 최종 분석에 이용된 대상자는 204명 이었다.

연구 표본의 크기는 G*Power 3.1 program을 이용하였고, 효과크기 0.15, 유의수준 0.05, 검정력 0.95로 설정하였을 때 119명이 산출되었다.

2.3 연구도구

2.3.1 자아존중감

자아존중감은 Rosenberg(1965)[14]가 개발한 Self-Esteem Scale을 Jeon(1974)[15]이 번안한 자아존중감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4점 Likert scale 최저 1점에서 최고 4점으로 되어있다. 점수의 범위는 최저 10점 최고 40점까지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Jeon(1974)의연구에서신뢰도Cronbach's α = .85이었고 본 연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 .80이었다

2.3.2 리질리언스

리질리언스는 Connor & Davison(2003)[16]의 Connor & Davidson Resilience Scale(CD-RISC)을 번안하여 백현숙(2010)[17]이 타당화한 한국형 코너-데이비드슨 리질리언스 척도(K-CD-RISC)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총 25문항으로 각 문항은 그렇지 않다 0점에서 매우 그렇다 4점의 Likert scale 4점 척도로, 점수의 범위는 최소 0점에서 최대 10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리질리언스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 개발 당시 신뢰도는 Cronbach's α = .89이었다. 백현숙(2010)의 연구에서 Cronbach's α = .93의 신뢰도를 보였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 .95 이었다.

2.3.3 주관적 행복감

주관적 행복감은 Lyubomirsky과 Lepper (1999)[18]가개발한 Subjective HappinessScale을 Kim.I.J.(2006)[19]가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4개의 문항에 7점 Likert scale 최저1점에서 최고 7점으로 되어 있다. 점수의 범위는 최저 4점 28점 까지 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주관적행복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Lyubomirsky과 Lepper(1999)의 연구에서 신뢰도 Cronbach's α = .86이었고 본 연구의 신뢰도 Cronbach's α = .85이었다

2.4 자료수집방법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22.0 program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 1)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 2)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 리질리언스 및 주관적 행복감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다.
- 3)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 리질리언스 및 주관적 행복감은 차이는 t-test와 ANOVA를 이용하였으며, 사후검정은 Scheffe' test로 분석하였다.
- 4) 자아존중감, 리질리언스 및 주관적 행복감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으로 분석하였다.
- 5)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자아존중감, 리질리언스 및 주관적 행복감 차이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자아존중감은 학년, 학과 만족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 검정 결과 학년은 1학년이 다른 학년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고 (F=3.978, p=.009). 학과 만족도는 매우 나쁨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F=5.950, p=.001). 리질리언스는 학년, 학과 만족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 검정 결

Table 1. Differences between self-esteem, resilience and subjective happiness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Categories	n(%)	Self-Esteem		Resilience		Subjective Happiness	
			Mean(SD)	t or F(p)	Mean(SD)	t or F(p)	Mean(SD)	t or F(p)
Gender	Male	39(19.1)	3.07±.53	-1.225 (.222)	2.91±.66	.395 (.693)	5.30±1.12	1.195 (.272)
	Female	165(80.9)	2.91±.55		2.86±.70		5.08±1.00	
Degree	1-year ^a	73(35.8)	3.13±.48	3.978 (.009) a<b,c,d	2.67±.50	3.378 (.019) a,b,c<d	5.28±.99	1.590 (.193)
	2-year ^b	36(17.6)	3.00±.58		2.96±.70		5.20±.96	
	3-year ^c	65(37.9)	3.45±.58		2.97±.83		4.91±1.15	
	4-year ^d	30(14.7)	3.17±.55		3.04±.68		5.13±.83	
Religion	Christian	35(17.2)	3.27±.50	1.520 (.210)	3.07±.73	1.237 (.297)	5.22±1.27	.262 (.853)
	Catholic	20(9.8)	2.96±.56		2.86±.67		5.17±1.19	
	Buddhism	4(2.0)	2.97±.78		2.96±.64		4.81±.37	
	Other	144(70.6)	3.18±.55		2.82±.68		5.11±.95	
Academic performance (score)	4.0≤	34(16.7)	3.11±.57	.159 (.924)	2.88±.74	1.156 (.328)	4.89±1.06	2.889 (0.37)
	3.0~3.9	154(75.5)	3.18±.54		2.84±.69		5.12±1.02	
	2.0~2.9	15(7.4)	3.18±.59		3.08±.50		5.6171	
	1.9≥	1(0.5)	3.20±.00		2.87±.00		7.00±.00	
Major Satisfaction	Bad ^d	7(3.4)	2.72±.81	5.950 (.001) a<b,c,d	2.41±1.03	16.137 (.000) a<b,c<d	3.96±.60	13.731 (.000) a<b,c<d
	Nor bad ^b	102(50.0)	3.06±.47		2.64±.62		4.85±1.01	
	Good ^c	81(39.7)	3.29±.56		3.05±.59		5.41±.77	
	Very Good ^d	14(6.9)	3.46±.60		3.71±.61		6.08±.94	
Motive	Employment	90(44.1)	3.16±.53	2.094 (.102)	2.81±.64	3.177 (0.25)	5.08±.94	1.762 (.156)
	Recommendation	44(21.6)	3.01±.52		2.72±.75		4.92±1.20	
	Aptitude	65(31.9)	3.28±.57		3.08±.68		5.35±.96	
	Other	5(2.5)	3.14±.61		2.60±.64		4.85±1.42	

과 학년은 4학년이 다른 학년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고(F=3.378, p<.019), 학과 만족도는 `매우 나쁨` 가장 낮고 `나쁨`과 `좋음`이 중간으로 나타났고 `매우 좋음`이 가장 높은 것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F=16.137, p=.000). 주관적 행복감은 `매우 나쁨` 가장 낮고 `나쁨`과 `좋음`이 중간으로 나타났고 `매우 좋음`이 가장 높은 것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F=13.731, p=.000). (Table 1).

3.2 대상자의 자아존중감, 리질리언스 및 주관적 행복감 정도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 4점 만점에 평균 3.17점이었고, 리질리언스는 4점 만점에 평균 2.87점 이었으며, 주관적 행복감은 7점 만점에 평균 5.15점으로 나타났다(Table 2).

Table 2. Nursing students' self-esteem, resilience and subjective happiness

	Mean±SD	Range
Self-Esteem	3.17±.55	1~4
Resilience	2.87±.69	0~4
Subjective Happiness	5.13±1.02	1~7

3.3 간호대학생의 자기효능감, 스트레스대처, 대학생활 적응과의 관계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은 리질리언스(r=.569, p<.001), 주관적 행복감(r=.355, p<.001)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리질리언스와 주관적 행복감(r=.355, p<.001)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Table 3. Correlation between self-esteem, resilience and subjective happiness of nursing students.

	Self-Esteem	Resilience	Subjective Happiness
Self-Esteem	1		
Resilience	.596 (<.001)	1	
Subjective Happiness	.355 (<.001)	.465 (<.001)	1

3.4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일반적 특성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학년과 대학생활 만족도를 설정하여 다중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잔차분석결과 Durbin-Watson 통계량 1.840으로 2에 가깝고 0 또는 4와 가깝지 않으므로 잔차의 독립성을 만족하였고, 독립변인 간의 다중공선성을 검정한 결과 공차한계(tolerance)는 0.958로 1.0 이하의 값이었고, 분산팽창요인(Variance Inflation Factor, VIF)은 1.044로 기준치 10이하로 나타나 독립변수들 간에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없었다.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학년(β=203, p=.002), 학교생활 만족(β

=.282, p=.000)으로 나타났으며, 주관적 행복감에 대한 설명력은 20.8%였다(Table 4).

Table 4. Factors affecting subjective happiness

Spec.	B	SE	β	t	p
Constant	3.160	.346		.913	
Degree	-.190	.060	-.203	-3.170	.002
Major Satisfaction	.686	.097	.452	7.042	.000
F(p)	26.342(<.001)				
R2	.208				
Adjusted R ²	.200				

4.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 리질리언스 및 주관적 행복감과 상관을 파악하고,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 리질리언스가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여 간호대학생의 주관적 행복감을 높여주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도되었다.

References

[1] 고순희, “미래간호사 인력 양성방안과 전문대학 간호학과의 역할,” 한국대학신문, <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226533>, 2020.03.03.

[2] 김경남, 강은희, “간호대학생의 자아존중감, 외모만족도, 전공만족도가 취업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한국 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21권, 제3호, pp.80-88, 2020.

[3]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4] C. M. Begley and P. White, “Irish nursing students' changing self-esteem and fear of negative evaluation during their pre registration programme,” Journal of Advanced Nursing, Vol. 2, No.4, pp.390-401, 2003.

[5] 조희, 이규영(2006). 간호대학 학생들의 자아존중감 및 진로정체감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간호학회지, 20(2), 163-173.

[6] A. K. Han, "A Study on Professional Attitudes and Self-Esteem in Nursing Students", Annual Bulletin of Seoul Health Junior College, vol. 14, pp. 149-158, 1994.

[7] Lee, S. K. (2001). Relationship between the level of sexual contacts and self-esteem, self-assertiveness of teenage girls who

have or had boyfriends.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7(2), 212-228.

[8] Block, J & Kremen A. M.(1996). IQ and ego-resiliency: conceptual and empirical connections and separaten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2), 349-361.

[9] Masten, A. S. (2001) 장애학 개론(An Instruction to Disability Studies).

[10] YE. Jung & JH. Chae, “A Review of Resilience Assessment Tools”, Journal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vol 49, pp. 50-57, 2010.

[11] [9] 김희정, “대학생의 긍정적 정서, 몰입, 삶의 의미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12] Ryff, C.D.(1989), “Happiness is everything, or is it? Explorations on the meaning of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ical Science, 57(6):1069-1081.

[13] Flaming, D.(2001), “Using phronesis instead of ‘research-based practice’ as the guiding light for nursing practice” Nursing Philosophy, 2:251-258.

[14]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15] Jeon, B. J. (1974). Self-esteem: A test of its measurability. Yonsei University of Journal, 11, 107-124.

[16] Connor, K. M. & Davison J. R. T.(2003). Development of a new resilience scale: the Connor-Davidson Resilience scale(CD-RISC).

[17] 백현숙(2010). 한국형 Connor-Davidson 회복탄력성 척도의 신뢰성 및 타당도 연구. 을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대전.

[18] Lyubomirsky, S., & Lepper, H.S. (1999). A measure of subjective happiness: Preliminary reliability and construct validation. Social Indicators Research, 46, 137-155.

[19] Kim, I.J.(2006). Positive psychology. Seoul: Mulpure.